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3호

발행인: 조민제
발행일: 2015년 6월 29일(월요일)
발행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제조업 공동투쟁 나선다!

제조 노동자들이 뭉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 노동자들이 지난 3월 11일 하나로 뭉쳤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와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면서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공투본은 공동 현장순회를 비롯해 계속해서 현장을 조직해왔다. 이제 그 결과로 7월 4일 제조노동자대회를 연다. 위기에 몰려있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에 대한 공격을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양대노총 최대 조직들이 나선다!

정부는 3월말까지 노사정위를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노사정위 야합을 막아냈다. 그러자 노동부가 나서서 시정명령을 통해 단협을 개악하고 취업규칙까지 사용자 마음대로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회를 통한 법 개악이 아니라도 정권 마음대로 노동시장을 흔들어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화섬연맹과 한국노총의 금속노련, 고무산업노련, 화학노련은 양 노총을 대표하는 최대 조직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구분없이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양 노총의 최대 조직들이 공동투쟁에 나섰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7.4 서울역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욕이 계속 꿈틀대는 상황에서 제조 노동자들이 선봉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7월 15일 총파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조노동자들은 7월 4일 먼저 공동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제조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이끌고 나아가 전 민중적인 총궐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발 한발 총파업 투쟁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7월 4일은 그 첫발이 될 것이다.

갑을오토텍지회 완벽한 승리!

갑을오토텍의 신종 노조파괴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금속노조의 완벽한 승리다. 갑을오토텍지회는 노조파괴 용병 52명 채용 취소, 기업노조 위원장 및 지회 탈퇴자 퇴사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조합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노조파괴 용병들은 전원 회사 밖으로 쫓겨나게 됐다.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용병들은 경찰, 특전사로 구성된 전문 폭력집단이었다. 이들이 휘두르는 폭력은 현장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공포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지회로 뚝뚝 뭉쳤다.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을 벌인 일주일 동안 누구도 이탈하지 않았다. 노조파괴 용병들이 생명을 위협할만한 폭력을 휘둘러도 지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로 뭉쳐서 대응했다. 결국 용병들의 마지막 발악은 '채용 취소'였다.

신종 노조파괴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파괴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또 새로운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다. 이번 투쟁에서도 확인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답은 '단결불패'다.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촉구! 보위전장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7월 1일(수) 11시00분
○장소: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공동파업 승리결의대회 양대노총 7.4 제조노동자대회

* 일시: 7월 4일(화) 14시00분
* 장소: 서울역 광장